



구골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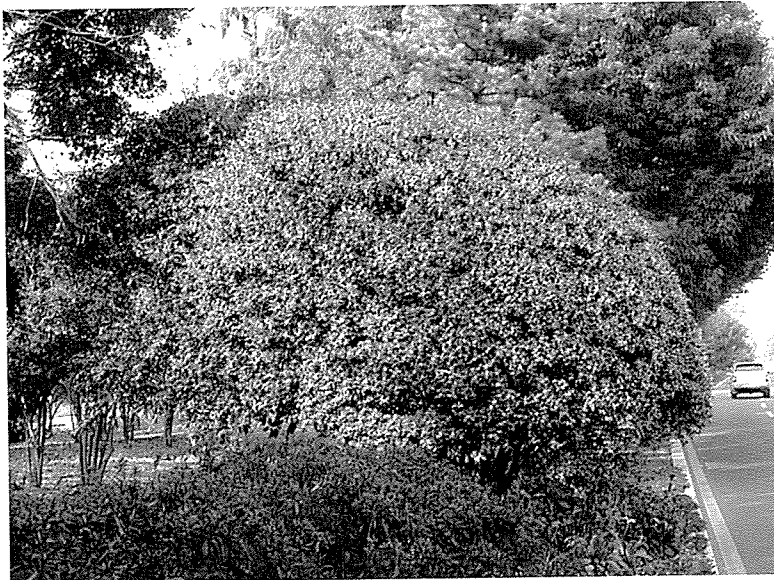


대구대학교 자연자원대학
교수 류 장 발

구골나무 (학명 : Osmanthus heterophyllus, 물푸레나무과)

11월 중순에 온 나무가 꽃으로 덮혔고, 향기가 진동하며, 꿀벌이 방화하여 꿀을 빨고 꽃가루를 모은다. 경험 많은 양봉인은 고개를 가웃거리거나 부정적으로 볼 듯하고, 초보양봉인은 신통하게 여길 듯하다. 아까시나무에서 일년 꿀 생산의 80%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오로지 아까시나무에 총력을 기울리게 되어, 가을에는 겨울을 튼튼하게, 안전하게 날 벌을 생산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더욱이 설탕이 상대적으로 값이 싸고, 중국에서 화분이 싸게 수입되는 현재에는 10월 중순까지 월동준비를 끝내고 그 이후에는 꿀벌이 편히 쉬기를 바란다.

양봉에 경험이 짧은 나로서는 아까시나무 한 종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며, 따라서 봄 일찍부터 가을 늦게까지 꿀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식물이 있는 것을 대견하게 보게 된다. 나는 아직까지 초보 딱지를 떼지 못한 탓인가?



구골나무. 11월에 온 나무가 흰 보석으로 덮인 듯 흰 꽃으로 덮혔으며 향기도 매우 진하다.

구골나무는 남부지방에서 심고 있는 상록관목으로 높이 3m에 달하며, 일본과 대만에도 분포한다. 수피는 회색이며 잎은 대생한다. 잎의 길이 3-5cm, 너비 1.5-3cm로서 난형 또는 타원형이며, 어린나무의 잎에는 대형의 예리한 거치가 있지만 노목의 잎은 거치가 없는 것, 한개만 있는 것, 거치가 많은 것 등 다양하다. 이런 잎의 특성이 학명의 heterophyllus(다양한 잎)로 된 듯하다.

자웅이주로 엽액에 꽃이 모여 달리며, 흰색의 꽃이 10-12월에 핀다. 화관은 직경 5mm 정도이고 4개



구골나무의 꽃과 잎(11월 7일, 대구의 동대구로에서).

로 갈라진다. 물푸레나무과의 다른 나무, 쥐똥나무, 광나무 등도 꽃잎이 4개로 갈라진다.

열매는 핵과로서 타원형이며, 길이 1cm 정도이고 다음 해 4-5월에 자흑색으로 익는다. 내음성이 강하다. 열매를 채취하여 바로 과육을 제거한 후 바로 파종하면 가을에 발아하나 월동이 어렵다. 따라서 종자를 건조시키지 말고 비닐봉지에 넣어 섭씨 5도 전후의 저온에 저장하였다가 가을에 파종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3-4월 혹은 6-9월에

가지삽목을 해도 뿌리가 잘 내린다고 한다.

비슷한 나무에 구골나무목서(*O. fortunei*), 은목서(*O. asiaticus*), 금목서(*O. fragrans* var. *aurantiacus*), 박달목서(*O. insularis*) 등이 있다.

수년전 중국의 계림(桂林)을 여행한 적이 있다. 여행안내자가 계림의 가로수는 모두 계수나무라고 소개하였는데, 같이 간 수목학자들이 목서라고 하였다. 안내자도 은계수나무와 금계수나무가 있다고 하였으니, 은목서와 금목서가 맞을 듯하다. 우리나라에 있는



꽃을 방화한 꿀벌. 뒷다리에 매달고 있는 화분괴가 보인다. 11월 중순에 일하고 있는 꿀벌을 보고 칭찬을 해야 되나? 꾸중을 해야 되나? (11월 12일, 대구수목원에서).

계수나무(*Cercidiphyllum japonicum*, 계수나무과)는 일본 원산의 낙엽교목으로 목서와 전혀 다른 나무이다.

구골나무가 꽃이 좀 일찍 피든지, 꿀벌이 좀 늦게까지 일하든지, 이렇게 많은 꽃이 피고 향기가 좋은 나무가 좋은 밀원으로 이용되지 못하는 것이 아깝다.